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1.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b>마</b>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b>타</b>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b>자</b>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b>파</b>
광주 062.524.3511	<b>바</b>	<b>아</b>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b>나</b>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b>하</b>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b>차</b>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2013.05

# 한국YWCA

**이달의 생각**

아름다운 유산 YWCA생명운동

**이달의 현장 ①**

제17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평화의 여정**

가정의 달, 북한어린이와 함께 해요

**오늘의 여성**

우리나라 모성보호 정책의 추이와 법안



붓꽃

기도는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현존에 우리를 열어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승리의 힘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란 바로 지금 내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나를 온전히 열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입니다.  
빛방울 안에 반짝이는 세상을 보듯,  
참 기도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것이요,  
그 앞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 병 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_ 아름다운 유산 YWCA 생명운동 | 유도희
- 05 이달의 인물 \_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아라 선생님 | 김기동
- 06 오늘의 여성 \_ 우리나라 모성보호 정책의 추이와 법안 | 홍승아
- 08 평화의 여정 \_ 가정의 달, 북한어린이와 함께 해요 | 최수산나
- 10 돌봄협동조합 \_ 사랑을 나눠 행복을 배로 키우는 돌봄공동체, YWCA에 있습니다 | 배정미
- 12 이달의 현장 ① \_ 제17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 14 이달의 현장 ② \_ 대구YWCA 창립90주년 | 대구YWCA
- 16 현장의 소리를 찾아 \_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YWCA 어린이집
- 18 생명 씨앗 \_ 한국YWCA정책교육 - 카타오카 테루미 씨 초청 강연회
- 20 생명 이야기 \_ 고통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를 구원한다 | 이윤숙
- 22 YWCA와 사회 \_ 생명이 생기를 - 생생한 이야기 | YWCA 국민일보 4월 기사 모음
- 24 카다리 \_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존 | 백해진
- 26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_ 평화 건설이 곧 사회정의 실현 | 최만자
- 28 문화가 산책 \_ 서울환경영화제
- 29 월례아침기도회 \_ 참 놀라운 세상 | 김기석
- 30 연합회 소식
- 31 회원YWCA 소식



표지이야기

연록의 앞들이 넘실대는 5월, 충주 YWCA가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한 소망을 담아 생명나무심기를 하였습니다. 아빠,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은 생명나무와 함께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10년 후, YWCA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 타임캡슐에 담았던 그 꿈을 꺼내 보며 성장한 자신의 모습에 기뻐할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 아름다운 유산 YWCA생명운동

글 | 유도희 (연합회 실행위원)



싱그러운 연록의 잎들이 너무나 사랑스런 계절이다.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에 갖가지 행사와 이벤트들로 전국이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분주한 일상으로 소홀히 했던 분들을 생각하고 살펴보는 고마운 달이기도하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13장의 말씀이다. 마노아의 질문인 “어떻게 기르오리이까?”는 모든 부모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다. 이 과제를 풀기에 도움이 되는 글이 있다.

「아이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삶을 갈구하는 생명의 아들이자 생명의 딸이다. (중략) 그대들은 활이며, 그 활에서 아이들은 살아 있는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간다.

궁수이신 그분은 무한히 펼쳐진 길에서 과녁을 겨누신다. 그리고 전능하신 힘으로 그대들을 당겨 화살이 저 멀리 빠르게 날아가도록 하신다. 그러니 그분의 손에 닿겨지는 것을 기뻐하라. 그분이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 튼튼한 활도 사랑하실 것이다.」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 아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기르느냐’ 이 소중한 과제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다. 한국YWCA가 정의와 평화에 이어 2013년 다루고 있는 ‘생명’ 이야기이다. 많은 생명들이 굶주리고, 갖가지 폭력에 시달리며, 생명을 멸절시킬 핵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바로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다.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인 식량권을 위해 나누는 생명운동,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사회폭력으로부터 예방교육, 제도를 마련하여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운동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핵 발전을 대신하는 안전한 생명 세상 에너지 자립운동, 가정의 달에 더욱 의미 있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 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운동. 이 모두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Y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운 일을 도모할 때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계절이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YWCA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5월이다.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름다운 유산 한국YWCA의 정의, 평화, 생명 운동. 

#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아라 선생님


글 | 김기동 (연합회 실행위원)



1984년 신축된 광주YWCA 유동 회관 2층에는 10평 남짓 소심당(素心堂) 조아라 선생을 기념하는 작은 방이 있다. 2003년 타계한 조아라 선생이 생전 사용하던 생필품들, 기록들 등이 소박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정결하고 빈틈없었던 그의 삶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1912년 전남 나주군 조형률 장로와 김서은 씨의 6남매 중 차녀로 출생하였다. 조형률 장로는 30리길 새벽기도를 다니고, 고향에 교회를 세우신 신앙이 철저했던 분이다. 선생이 다녔던 수피아 학교의 교육도 신앙적 교육이었다. 1922년 민족의 암흑기, 이 땅의 여성들을 깨우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광주Y가 태동하는데 김필례가 있었다면, 1938년 일제에 의해 폐쇄되었던 광주Y를 해방 후 재건시키고 광주 여성운동의 본거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 중심에는 조아라가 있었다.

해방 후 한 달 남짓 9월 14일 금동 금정교회 부속 유치원에서 조아라 등의 발의로 광주Y의 재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광주Y의 두 번째 시대가 열리게 된다. 특히 그 자리에서는 이후 광주Y 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즉 여성의 올바른 애국운동, 건전한 기독교 생활화 운동,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운동, 민주정치 안정을 위한 여성의 행정 및 의정 참여 운동 등으로, 이는 이후 전개될 역사와 민족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서의 광주Y 여성들의 활약의 원동력이 되었다. 광주Y 재건 때 상무이사로 시작하여 1947년부터 72년까지 26년간 광주Y 총무, 73~76년과 79년~83년까지 두 번의 광주Y 회장, 이후 광주Y 명예회장, 2003년 92세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조아라의 YWCA 사랑은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보잘 것 없고 미약했던 한 YWCA를 민족

과 사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체로 성장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지 보여주는 모범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여성운동가 조아라와 함께 광주Y는 광주 지역 여성운동의 메카가 되었다. 지방 최초 가정법률상담소 개소(1966), 신용협동조합 결성(1971), 농촌사업 그리고 소비자운동을 일으켰다. 사회운동가 조아라의 열정은 광주Y로 하여금 호남여숙과 성빈여자 설립(1952), 별빛 학교 개설(1961), 계명여자 설립(1962) 등 사회 부조리와 가난에 고통당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사회복지 사업의 선구자로 우뚝 서게 했다. 12대 회장 재임 시,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되어 전국에 민주화운동이 고조될 당시, 조아라 회장은 그해 10월 매주 목요일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된 수감자들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시작하여, 광주Y가 사회 불의에 항거, 민주화에 동참하는 민중기독교운동체로 각인되게 하였다. 14대 회장 때는 광주민주화항쟁의 소용돌이에서 양심적 재야명당을 중심으로 한 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르고 또한 5·18의 실상을 독일과 미국 등 외국에 직접 알려 희생자를 줄이기에 힘쓰으로써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기까지 하였다.

불의를 거부하는 운동 그리고 가난한 소외계층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돌파시킨 여성으로 기억되는 조아라 선생. 여장부라 불리고 때로는 ‘외골수’로 보였던 선생의 힘은 하나님과 기독교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돈이 없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필요한 일’ 이면 하나님만 믿고 시작했던 그의 믿음이 그의 평생을 지탱한 유일한 힘이다. 

#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그 어느 때보다 절실

글 |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여성의 고용평등뿐 아니라 모성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즉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일과 병행,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본고는 우리나라 모성보호 정책의 발달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0조), 산후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제한(제71조), 출산전후휴가의 제공(제74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제74조 2), 유급 수유시간의 제공(제75조) 등을 통하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출산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기하고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에서는 육아휴직제도(제19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제19조의 2), 배우자출산휴가(제18조의 2)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모성보호 관련법』들은 지난 20여년간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제도의 발전을 꾀하여 왔으며, 특히 2012년 2월에는 출산관련 휴가제도를 개정하여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등의 모성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출산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여성근로자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 역사적으로 살펴본 모성보호제도

역사적으로 보면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출산전후휴가제도를,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제공’ 하는 형태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 남성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1년에는 모성보호 관련 3법의 개정을 통하여 유급의 육아휴직제도로 전환하였다. 이후 2006년에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남녀 각 1년씩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였으며, 육아휴직의 사용도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주요 개정내용

한편, 2012년 2월에 다시 개정하였으며, 2012년 8월 시행되기 시작한 최근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전후휴가’의 명칭이 의미전달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었다. 이는 출산관련 휴가제도의 성격과 현장에서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임신 초·중기 응급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하도록 종전에는 90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한데 비해 이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8월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의 취지를 보다 강화하였다.


셋째, 유·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래의 유·사산 휴가기간의 제한을 없애어 여성근로자들이 유·사산 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여성의 출산시 지원을 위하여 남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종전의 3일(무급)에서 5일(유급 3일, 무급 2일)으로 전환하여 남성들이 경제적 손실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부성휴가(paternity leave)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유급휴가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유급휴가로 전환은 필요한 변화이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변경을 통하여 남성의 자녀출산 및 양육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육아휴직의 대상자를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의 차원으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이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제도 접근성을 높여 주려 하였다.

##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이같이 제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실제 활용을 위해서 제도와 실제 활용 간의 괴리(gap)를 좁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및 기업의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근로자의 권리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남녀가 육아의 책임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업 현장에서는 법정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계도 및 관리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실제 사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실태조사의 실시, 근로자의 권리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 및 단체의 활동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가정의 달, 북한어린이와 함께 해요

글 | 최수신나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부장)

## 나눔은 어릴 때부터

“북한친구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남기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스크림 사먹으라고 돈을 주셨는데 안 사먹고 저금통에 넣었어요”  
“자꾸 까먹긴 하지만, 자기 전에 북한아이들이 굶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생생한 나눔 실천의 이야기이다. 어릴 적 배움과 작은 실천으로부터 나눔의 문화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한국 YWCA는 우유팩 저금통을 만들어 배포하고 매일의 밥상에서 북한어린이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YWCA 26개 어린이집과 “우리 유치원, 북한 어린이와 함께 해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북한의 식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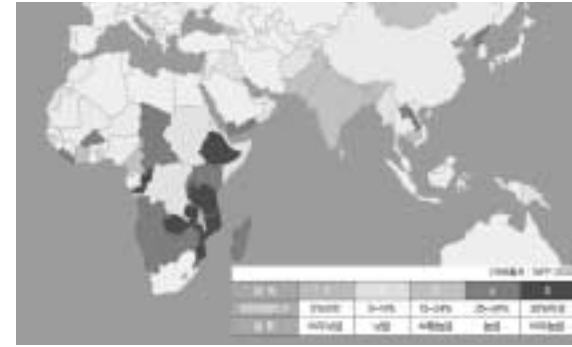
북한의 5, 6월은 가을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햇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아 식량이 모자라는 춘궁기, 즉 보릿고개이다. 지난 해 북한은 극심한 봄 가뭄을 겪으며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였다. 다행히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서 농작물 작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북한 주민 10명의 1명꼴인 280만 명은 끼니를 거르는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이 곡물 51만 톤을 수입해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올해 수입한 곡물은 12,400톤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UN은 향후 6 달 동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것

이므로 북한이 곡물수입을 늘리든가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매년 초 대규모 식량을 지원해오던 북-중 식량지원 논의도 북한의 도발위협과 긴장 고조 행동을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식량난을 타개하기는 더욱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기초대사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식사를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강냉이, 감자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으로 때우는 것이라 지방, 단백질, 무기질의 영양소 섭취가 크게 부족하다고 세계보건기구는 지적해왔다. 1994년부터 98년까지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지난 지 14년이 되었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여전히 강냉이밥에 나물 한두 가지로 식사를 때우고 있다.

세계 수준에서 비교해 봐도 북한의 기아 상태는 심각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35개 식량 부족 국가 중 아프리카가 80%를 차지하며, 아시아는 북한을 비롯해 6개국뿐이다. 또한 유엔에서 분류한 기아 분류단계의 5단계 중 4단계로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이들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국내 손길은 미약하다.

더 비참한 것은 배고픔이 세대에서 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어린이와 임산부는 배급 우선 대상이지만, 이미 배급이 끊긴 상황이라 기댈 곳이 없다. 아이들은 섭취하는 영양에 따라 건강과 지능, 발달능력, 생명력이 좌우된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아이들은 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전체인구 대비 영양결핍 인구 비율을 근거로 전 세계나라들을 5단계로 분류한 세계기아현황지도, 북한은 4단계이다.

를 이은 굶주림과 질병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 나눔으로 평화

우리는 흔히 평화란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정신적, 영적인 상태에 국한된다고 쉽게 오해한다. 하지만 성서는 물질적인 평화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보편적 사회 복지나 약자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평화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따라서 평화는 분배 정의를 동반한다는 것을 기독교적 평화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많은 문제들은 경제적인 불평등과 소유의 불공평함에서 발생한다. 빈곤과 불평등과 부정의한 경제구조가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을 주변국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끝없는 분쟁과 전쟁의 근원을 살펴본다면, 인간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방해하는 기아와 불평등의 요소를 제거하고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나눔의 노력을 통한 평화 운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종종 기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만한 충분한 식량이 지구상에 있는가를 질문한다. 물론 충분하다. 지구는 현재보다 두 배나 많은 인구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1984년 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 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구는 120억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2,400~2,700칼로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



YWCA북한어린이돕기운동에 참여한 '마포희망모금봉사단' 어린이들

다는 얘기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물질적인 결핍은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문제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굶주림은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심해지고 있다. 기아의 원인에 환경적인 원인과 함께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기아는 복합적인 원인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식량이 넉넉한데 굶고 있는 이웃에 집안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식량을 나누어주지 않을 핑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린이일 뿐, 정치적인 대상은 아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우리 가정에 품고 매일의 밥상에 초대하는 마음으로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모금과 기도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 평화통일을 꿈꾸며 성장해가도록 돕는 가정의 달, 오월이 되기를 소망한다. 



♥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합니다 ♥  
농협 : 386-17-000052  
예금주 : 한국YWCA연합회

# 사랑을 나눠 행복을 배로 키우는 돌봄공동체, YWCA에 있습니다

글 | 배정미 (연합회 돌봄과살림팀 부장)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에서 라다크인들은 빈약한 자원과 혹심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존경심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4년 라다크 지방이 관광지로 개방이 되면서부터 돈의 가치에 현혹되더니 결국 공동체 분열의 위기까지 겪게 된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라다크 프로젝트’라는 국제적 조직을 설립하여 ‘반개발’이라는 자신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돌봄분야의 영세성을 극복하고자 지원했던 사회서비스선도사업을 종료하면서, YWCA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된 미래’가 있고, 그 가치를 확장시켜 제3의 돌봄모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굳혔다. 돌아보면, 길게는 1920년대부터 그리고 짧게는 1966년부터 YWCA는 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성장한 조직임에 틀림없다. 상부상조에 기반한 YWCA 돌봄회원의 대표적인 자치활동은 월 1회의 월례회(또는 보수교육), 연 2~3회의 소풍, 동아리 조직 및 활동, 기타 공동구매를 통한 기금적립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전제했듯이 놀라운 것은 각 회원Y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돌봄회원의 상부상조 정신에 기반한 자치활동으로 일련의 활동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먼저 월례회는 돌봄회원의 보수교육의 별칭이다. YWCA는 돌봄회원의 수나 돌봄직종과는 상관없이 월 1회 연 10회 2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풍은 회원Y마다 돌봄회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부산Y의 경우, 우수활동 돌봄회원에게 포상의 의미를 담은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등 고된 감정노동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아리 조직 및 활동은 회원의 자발적인 소그룹 활동을 지향하는 Y의 대표적인 회원활동이다. 단순 취미나 경력개발 차원에서 벗어나 민들레의식이라는 소그룹 공동체 의식을 함양, 제고시키는 활동을 통해 나로부터 확장된 공동체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춘천Y 마미손은 대표적인 동아리 활동의 예이다.

2013년 현재, YWCA는 협동조합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조직구성이 아니라 위에서와 같이 Y안에 내재된 상부상조, 협동의 정신을 조직화하고자 한다.

### 이복화(춘천Y 마미손 봉사단 회장)

2007년 6월에 냉면집에서 같이 서빙을 하던 분으로부터 YWCA라는 곳과 그곳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가사도우미 교육을 신청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돌보미 활동을 한 지 6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어떤 회원맥이라도 두렵지 않고, 내가 도와준 회원이 다른 회원을 소개시켜 줄 때면 정말이지 그때는 큰 보람을 느낀다. 그렇게 보람을 갖고 일하던 중 춘천Y 살림돌보미 담당자가 봉사활동을 제안해 왔다. 많은 돌봄회원들이 좋은 일이라며 너도나도 자원을 했다. 그



서울Y 돌봄과살림 임원훈련 감성공동체 교육



서울Y 돌봄과살림 임원훈련

동안 사는 게 바빠 신경조차 못쓰고 살았지만 이제는 눈을 돌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2년 8월, ‘마미손’이라는 이름으로 20여명의 돌보미들이 춘천시 혈동리에 있는 지적장애인복지시설 ‘밀알재활원’ 과 미혼모 시설인 ‘마리아의집’에서 원생들의 방을 청소하고, 성당도 청소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미혼모... 처음에는 선입견 때문인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누구라 할 것 없이 친근해졌다. 봉사를 마치고 떠날 때쯤이면 그들은 현관 밖에까지 나와서 우리들을 배웅해 준다. 처음엔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된다고 하는가보다.

춘천Y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돌봄 업무는 물론, 봉사활동 중의 힘든 고충이나 개선 사항을 점검하면서 매일 매일의 보람을 크게 키우고 있다. 봉사동아리 ‘마미손’ 회원과 YWCA의 모든 돌봄회원과 그들이 돌보는 가정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 조은정(서울Y 돌봄과살림 37기)

모진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이 초록빛 잎들을 펼쳐 보이는 4월 26일.


설악산에서 개최되는 임원훈련에 참석했다. Y회원이 된 지 10년 만에 두 번째의 임원훈련을 다녀온 것이다.

매번 느끼지만, 서울Y의 돌봄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회원의 특성은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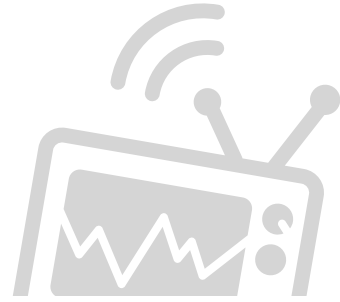
시기별 꼭 필요한 맞춤 교육이 수시로 기획된다는 것인데, 이번 임원훈련의 주제 역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감정코칭’이었다. 흔히 말하는 ‘감정노동자’로서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언제나 긍정적인 좋은 생각, 미소를 지으며 인간관계나 사물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준 워크숍이었다.

감정코칭 강의 덕분인지,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코칭기법 사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Y를 비롯한 여러 ‘만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 돌봄회원들이 비록 아직은 낮게 평가되는 남의 집 청소나 부엌일을 하는 돌보미지만,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식들 교육 잘 시켜 좋은 직장을 다니는 등 반듯하게 잘 키우고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Y의 돌봄회원들은 업무 외에도 동아리활동을 통해 등산, 운전면허, 요리사자격증, 피부미용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채워나가고 있다.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 YWCA에서 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자량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Y, 서울Y만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각종 훈련을 통해 돌봄회원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성장뿐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과 보람으로 YWCA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YWCA 정신을 살린 총 6개 프로그램 시상



제17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이 4월 25일 연합회 강당에서 수상작 제작진, 심사위원, YWCA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는 '생명, 여성, 청년·청소년, 평화' 부문의 우수 프로그램을 추천받았다. 총 63편의 추천작 중에서 전문심사위원단의 예심과 본심을 거쳐 총 6편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한국YWCA는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제작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격려하고자 1996년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을 제정하였다. 올해로 17회 째를 맞이한 좋은 TV 프로그램 상은 '정의·평화·창조 질서의 보전'의 가치를 사회에 실현하고자 TV 프로그램 중 생명, 여성, 평화, 청년·청소년 부문에서 살림과 나눔, 섬김의 가치를 잘 표현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필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여성 부문에는 거대담론 속에 묻히기 쉬운 사회적 중요 이슈를 정면에 내세우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KBS <시사기획 창> - 임신하면 안 되나요?, '수요집회 20년, 끝나지 않은 전쟁' (기획·연출: 김진희, 이영재, 임승창, 김진환)이 뽑혔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현장 고발과 함께 여성 인권과 평화를 동시에 생각해볼 수 있게 하였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공존, 사랑, 협동, 나눔의 삶의 방식을 제시한 SBS대기획 <최후의 제국> (기획: 박기홍 연출: 장경수, 최정호)이 선정되었다. 이날 최후의 제국을 대표하여 수상 소감을 맡은 박기홍 CP는 "정의 평화 생명존중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송작품에 격려하는 YWCA에서 큰 상을 받게 무한한 영광이며, 한 해 두 해를 거쳐 YWCA 좋은 프로그램의 수상작을 통해 우리사회가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을 느끼며, 미디어 제작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작품은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에서 잔인한 경쟁이 삶의 방식이 되고 돈이 신이 되어버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자기반성을 담고 있다.

청년·청소년 부문에는 대한민국 학교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치밀한 현실 반영으로 공감을 이끌어 낸 KBS 월화미니시리즈 <학교 2013> (책임프로듀서: 황의경 연출: 이민홍, 이응복)에 상이 돌아갔는데, 학교 2013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평화 부문에는 우리사회에 '힐링'의 바람을 일으키며 화해와 나눔, 공존의 가치를 전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기획: 최영인 연출: 백승일)가 선정되었다.

생명 부문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자살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MBC <PD수첩> - '생명 존중 기획 2부작' (기획: 배연규 연출: 조준, 정재우, 손현동, 김경희)이 선정되었는데, 자살예방 정책의

올해의 특별상으로는 2011년부터 비무장지대 DMZ에 숨겨진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왜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G1 강원민방 DMZ 스토리 (프로듀서: 김태정 조연출: 전성호)가 수상하게 되었다. DMZ를 둘러싼 문학, 인물, 자연, 생태, 건축, 전쟁사 등 다양한 소재를 인문학적 관점으로 조명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였다. (글: 편집실)



·대상 SBS대기획 <최후의 제국>



·생명부문 MBC <PD수첩> '생명존중기획 2부작'



·여성부문 KBS <시사기획 창> '임신하면 안 되나요?'  
수요집회 20년, 끝나지 않은 전쟁



·청년·청소년부문 KBS 월화미니시리즈 <학교 2013>



·평화부문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특별상 G1 강원민방 <DMZ 스토리>

# 은혜의 90년 감사의 100년

글 | 대구YWCA

2013년 4월 21일 대구YWCA 창립90주년을 맞이하였다. 대구YWCA는 한국YWCA 창립 다음해인 1923년에 신명 학교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김활란·황에스터 선생님의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조선의 백성에게는 암울하기 그지없는 시기였고 더욱이 여성은 그 존재 가치에 대해 인정받기 어려운 시기였다. 이 척박한 땅에 세워진 YWCA는 그야말로 한줄기 빛이었다.

지금의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의 눈물과 헌신의 터 위에서 여성의 인권과 정의와 평화를 외쳐왔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딸과 그 딸의 딸들에게 물려줄 고귀한 삶의 터전과 올바른 정신적 가치를 물려주어야 하리라.

대구YWCA는 이러한 역사의 준엄한 흐름 위에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를 위해 90주년을 맞아 몇 가지 소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90주년의 시작을 나눔으로부터 시작한 대구YWCA

(주)민들레가게 및 무료 치과(착한 치과) 개원 착한 먹거리운동, 지역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로컬운동, 4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전개해온 아나바다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주)민들레가게와 우리의 이웃인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노약자들을 위한 무료치과인 착한 치과를 개원하게 되었다. 대구YWCA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 감사와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구YWCA

창립9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 2013년 4월 19일 /

### YWCA 6층 새하늘과 새땅

대구YWCA 창립90주년은 YWCA연합회 회장, 사무총장, 52개의 지방YWCA회장, 사무총장, 대구시장 및 대구시의 각 유관기관, 기업의 대표, 시민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YWCA회원과 대구시민이 함께 하는 축하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예배는 이동관 목사(대동교회), 기념식에는 연합회 차경애 회장의 격려사, 대 김범일 대구시장의 축사,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장의 축사, 그동안 대구Y를 위해 헌신하고 협력한 개인과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김희영(안동대 명예교수)이사와 김혜경(예원오페라단장)이사의 특송과 리셉션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구YWCA 창립의 발원지인 신명여고와 제일교회, 동산병원 선교·의료·교육 박물관, 3.1운동 길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준비하여 90년의 역사가운데 우리 선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 평화와 생명운동으로 로컬운동을 펼치는 대구YWCA

Y-DAY 평화행진 / 2013년 5월 25일 / 신천둔치 대구Y는 주민들과 함께 정의·평화·생명운동을 펼쳐나간다. 결혼이민여성의 백일장, 새터민과 함께 하는 어깨동무, 돌보미 회원들의 단합의 장, 여성 일자리 박람회, YWCA 아나바다운동, 청소년 회원활동, 달서지역자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달서구청소년쉼터, 노인복지센터의 활동소개 부스 등 대구Y의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각종 체험부스를 만들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 뿐만 아니라 신천둔치를 걸으며 평화를



대구Y 9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신명여고 박물관 관람



기념식 리셉션



의료선교박물관 관람

기원하는 평화조건을 진행 할 예정이다. 많은 대구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행사이다.


### 평화의 노래로 이웃을 품는 대구YWCA

창립 90주년 평화음악회 / 2013년 10월 17일 / 수성아트피아 대구Y는 그동안 우리 이웃이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의·평화·생명운동을 펼쳐왔다. 창립90주년 평화음악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을 함께 노래 부르고자 준비하였다. 유명 피아니스트와 성악가, 그리고 YWCA 홍보대사 팜페라 가수 임형주가 출연한다. 음악회 공연 수익금은 북한어린이 돕기와 저개발국가 여성지도력지원, 노인복지주택 마련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지구촌 곳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는 대구YWCA

평화의 발자취 : 캄보디아 방문 / 2013년 11월 5일부터 9일 / 캄보디아 프놈펜, 앙코르와트

90주년의 마지막 행사로 평화의 발자취, 캄보디아를 방문한다. 대구Y는 2011년부터 가정폭력 피해 여성인 초은씨를 돕고 있다. 남편의 폭력에 맞서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대구Y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구명운동을 펼쳐왔고, 그녀가 본국으로 추방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 상처가 회복되고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4년간 매월 200불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그녀는 현재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학과(야간)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이번 방문이 초은씨 뿐 아니라 저개발국가 여성지도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고, 지구촌의 어려운 형제·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90년간의 한결같은 은혜가, 10년 후 감격과 감사의 100주년을 맞이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창립90주년을 준비한다. 

#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운다

어린이를 거치지 않고 성인(成人)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활동, 돌봄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 시절의 교육과 돌봄은 한 인격체로 성숙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시기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과 애정 가득한 돌봄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세계를 그려간다. YWCA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준다.

YWCA어린이집의 역사는 1952년 부산Y가 한국전쟁 당시 세계YWCA를 통한 구호금과 구호품을 가지고 탁아소를 운영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보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설립하였고 광주Y, 목포Y, 대구Y, 청주Y, 세종Y, 대전Y는 일하는 여성들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절 탁아소를 농촌지역에서 운영하였다. 또한 70년대 후반 이후 어린이 교육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YWCA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4만여 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수많은 어린이집 가운데 YWCA 어린이집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성남YWCA어린이집 최영숙 원장은 “어린이 인성교육이나 다문화 프로그램, 자연학습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은 이미 이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에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면, 그 교육의 중심에는 YWCA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질서의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이들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끌어내주고 싶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고 말한다.

## 성남YWCA어린이집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이’라는 원혼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YWCA목적인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성남YWCA어린이집은 1988년에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 성남YWCA어린이집은 그 목적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올해는 아이들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를 실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생명사랑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지난 4월에는 4,5세반 아이들과 함께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12월까지 흙, 물, 착한세균EM, 전기절약, 아나바다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자연을 아낄 수 있는 활동 내용을 나눈다. 또한 ‘숲’, ‘마실’, ‘텃밭’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숲길을 걸으며 나무와 풀을 배우고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거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하면서



성남YWCA어린이집 환경지킴이 발대식

보는 눈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면’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단계에서는 아이들 스스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러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생명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성남YWCA어린이집은 부지런한 농사꾼이 되어 아이들에게 씨앗을 심고 충분한 햇빛을 받게 하고 물을 주며 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성남YWCA어린이집은 부지런한 농사꾼이 되어 아이들에게 씨앗을 심고 충분한 햇빛을 받게 하고 물을 주며 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 부산YWCA어린이집

부산YWCA부설 어린이집은 1990년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았던 부산 장림2동에서 시범탁아소로 개원하였다가 이듬해 1991년 부산YWCA부설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았다. 부산YWCA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독교 생태교육 지향이다. 생명, 환경, 아이와의 만남이 있는 숲반(만 4~5세 혼합반)을 운영하여, 숲반 어린이들은 주 3회,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숲에서 활동한다. 숲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실’이자 ‘놀이터’이고, 자연이 바로 선생님이다. 숲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놀며 생태순환적인 삶을 스스로 배운다. 나무와 들꽃, 곤충, 야생동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인간 모두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함께 공존하는 곳이 숲이



부산YWCA어린이집 숲반 프로그램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곳이 바로 내가 사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무와 들꽃, 곤충, 야생동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인간 모두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함께 공존하는 곳이 숲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곳이 바로 내가 사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숲 안에서 신선한 공기와 흙을 밟으며 몸과 맘이 건강한 어린이로 자란다. (글 : 편집실)

### 전국의 YWCA어린이집 (총 26개)

- 고양 문촌9사회복지관 어린이집
- 서울가락 어린이집
- 고양 어린이집
- 원주 어린이집
- 광명한빛어린이집
- 인천삼산 어린이집
- 성남 어린이집
- 춘천 어린이집
- 수원 유아체능단
- 세종 어린이집
- 거제 어린이집
- 청주 어린이집
- 마산 어린이집
- 청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 부산Y 부설어린이집
- 광주 어린이집
- 부산강서 어린이집
- 군산 어린이집
- 부산진구 어린이집
- 목포 어린이집
- 진주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
- 서귀포 어린이집
- 창원 어린이집
- 전주 어린이집
- 통영 어린이집
- 제주 어린이집

# 탈핵과 생명운동 카타오카 테루미 씨 초청 강연회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Y아카데미 정책 교육이 있었다. '탈핵과 생명운동'이라는 주제로, 후쿠시마 아이즈방사능 정보센터 카타오카 테루미 씨 초청하여 5부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로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카타오카 테루미 씨는 3.11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민들의 정신적 후유증과 방사능의 일상적 공포, 신체적 고통과 건강상의 염려, 보상과 피난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분단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였다. 아카데미 회원들은 원전의 위험성과, 사고 이후의 방사능은 자연의 파괴는 물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알고, 탈핵과 탈핵 실천을 위한 대안 에너지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 참가 후기

**이영희** (Y아카데미 서부지역센터장, 전주Y 회장)

제작년 동일본 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되는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지만, 벌써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열린 워크숍은 시의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카타오카 씨는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해 이번 강연을 통해 핵발전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의 정책이 반드시 탈핵으로 선회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핵발전 대안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오선명** (전주Y 청소년부 위원)

이번 강의를 듣고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운동이 아닌 우리의 생존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후세들이 과연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숨 쉴 수 있겠는가를 생각에 분노가 치솟아 오르기도 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탈핵운동의 필요성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반핵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Y가 더욱 앞장서야겠다.

**반혜영** (창원Y 사무총장)

이번 강의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의 실상을 주변인들에게 전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웃나라에서 큰 사고가 났음에도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 속에서 사라져가고, 현재의 편리성 때문에 위험을 각인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Y 목적을 다시 새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바람이 되어야 함을 다짐한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Y가 앞장서 계몽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정숙** (Y아카데미 경기지역센터 위원장, 안양Y 직전회장)

현재 살아가는 우리는 각종 전자제품과 기기들로 둘러싸여 살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강연을 들으면서 그 당연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며, 후손들에게까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원전하나 줄이기'를 많은 이들이 대

안 없는 과격한 말로 이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 문제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실천'이 무엇인지 용기를 내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손들에게 '빛'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전체적인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하여 경제성을 높여 안전한 녹색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바꾸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김은희** (청주Y 이사)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사건은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 강의는 하나의 큰 충격으로 남겨졌다. Y공동기도문의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가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강의였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님은 묻고 계신다. 방사능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늘 감사한 주님. 도와주소서! 🙏



한국 YWCA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이번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훌륭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모든 강연회장에서, 핵발전소 사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재난 피해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해주고 계신 YWCA의 여러분의 모습에서 저는 많은 위안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하려면 앞으로 30~40년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도중에 큰 지진이나 사고 등이 또 발생하게 되면, 발전소가 통째로 무너질 위험성도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매우 절망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어린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탈원전과 탈핵의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점점 더 '생명이야말로 보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더욱더 벌여나가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부터의 베풀어 주신 융숭한 대접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한국 요리, 편안한 숙소, 자긍심 깊은 역사를 간직한 사적지를 방문한 것들, 모두 저에게는 '쉼(保養)'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에 참가한 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쁜 일본에서의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 깊은 명상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YWCA의 활동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각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연결된 여성들의 일상과 활동들, 그리고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만날 그 때를 마음속 깊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즈방사능정보센터 대표 카타오카 테루미

# 고통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를 구원한다

글 | 이윤숙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 후쿠시마, 고통의 증언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대전, 전주, 경주 등 전국 YWCA 정책교육 현장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아프고도 뜨거운 진실의 목소리가 넓고 깊게 울려 퍼졌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지점으로부터 100킬로미터 떨어진 땅에서 방사능 공포를 딛고 일어서서 핵발전소 없는 세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 아이즈방사능정보센터 대표 카타오카 테루미 씨, 그녀의 목소리는 하나의 사실도 허투루 전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듯 또박또박 단호하고도 힘이 있었다. 옆에서 통역을 하고 있던 나는, 언어를 한계를 넘어 모든 걸 다 전하려고 애쓰는 그녀의 눈빛, 목소리의 힘과 떨림, 손짓과 표정 하나 하나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확실히 전하기 위해 온 신경과 감각을 다 동원했다.

나는 카타오카 테루미 씨와 매순간을 함께하며 전국 각지를 순회하는 경험 속에서, 누군가에게 보통의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실, 이를테면 천재지변과 학살이나 폭력의 경험을 자기 목소리로 말하고 전하는 것, 즉 증언한다는 사실이 말하는 이에게 가져다 주는 어려움, 부담과 안타까움을 시시때때로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고통스런 경험이 이들에게 과연 전달될 수 있을까, 언어와 공간, 그리고 시간의 장벽을 넘어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이 고스란히 전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망설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한 의

지가 솟구쳐올라 눈빛이 강해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녀의 모습을 매번의 강연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녀뿐 아니라,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들, 위안부 할머니들, 성폭력 피해자들 등등, 증언하는 자들은 모두가 같은 혼란과 모순 속에서 서있으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역사와 현실을 관통하는 진실을 함께 알고 미래를 만들어나갈 상상력을 갖기를 바랐을 것이다.

## 이미지를 뛰어넘는 말하기의 힘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에 이은 쓰나미와 핵발전소 폭발의 대재앙이 바로 2년 전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났다. 시커먼 바닷물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파괴시키는 장면, 이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연이어 폭발하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 본 직후, 우리들은 '설마... 핵발전소가..' 라는 가정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핵발전소의 공포스런 위력을 실감했다. 그리고 핵발전소 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의 대재앙이 눈에 보이지 않게 널리 퍼져나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느새 전력수급과 경제발전을 위해선 핵발전소가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무감각해져 있다.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대재앙의 이미지들이 일상의 뉴스를 휘감고 있던 그때가 지나가 버리자 우리들은 다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일상에 안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텔레비전 영상 속에 비춰진 그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절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 것일까.

미국의 비평가 수잔 손탁은 「타인의 고통」에서,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참사들이 텔레비전과 사진 등 영상매체를 통해 수없이 쏟아지면서 그것들이 뭔가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그 이미지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그곳에 있지 않고 여기 안전한 곳에 있다고 느끼게 하면서 오히려 고통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무디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카메라의 눈을 통해 쏟아지는 이미지의 한계, 즉, 전해지는 이미지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사이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보다는 그 세계와 이 세계의 간극을 넓히는 이미지의 한계를 넘어 진실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 우리에게도 현실로 일어날지 모르는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그런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먼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으로서 증언을 하려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일일 것이다.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공포와 폭력'에 맞서 싸우는 카타오카 씨가 자신의 목소리로, 역시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에 사는 여러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호소할 것들을 곱씹어 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일 것이다.


그녀를 통해 우리는 이른바 '후쿠시마 사태'가 몰고 온 재앙이 폐허로 변한 도시와 대지, 보이지 않게 오염된 공기와 바다만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인간관계의 파괴라는 훨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것까지 퍼져있음을 알았다. 전쟁이나 핵발전소 폭발 같은 대재앙이 났을 때 국가는 민중들을 보호해 주지 않음은 물론이요,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소위 전문가를 동원하여 은폐하려 한다는 것도, 주먹을 불끈 쥐 그 분한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진실을 알고 방사능의 공포와 맞서 싸우면서 아이들과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모습에서 감동과 희망을 보았다. 진실을 담은 한 사람의 이야기는 수없이 펼쳐지는 가공할 이미지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긴 여운을 남긴다는 것을 그녀를 통해 절실히 체감하였다.

##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

카타오카 씨는 경주 강연회 전날 미리 경주에 와서 방사능폐기물처리장과 월성핵발전소를 둘러보았다. 월성핵발전소 바로 앞에 펼쳐진 아름답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자마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주와, 아름다운 자연과, 거기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이들의 생명이 핵발전소라는 폭력에 의해 송두리째 위협당하고 있음을 '이미 고통을 경험한 자'의 몸으로 절절하게 느꼈고 또 상상했기 때문이었다.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이 정의를 위한 전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을 때, 일본의 학자 오카 마리는 고통에 대한 상상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들처럼 생생한 상상력을 과연 갖고 있는 걸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인간을 보며 말하고 있는 걸까? 정찰 위성의 시각일까, 아니면 폭격으로 통곡하는 바위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시각일까?" 라고.

카타오카 씨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눈을 마주보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손을 마주잡는 '고통에 대한 연대'가 필요하며, 그것이 힘이 되고 위안이 됨을 알았다고 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고통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가 고통당하는 자에 대해 그저 연민을 갖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통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 배후에 감추어진 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고통들을 상상해 보는 일일 것이다. 우리 일상의 안온함이 타인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힘,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생명에 생기를 – 생생한 이야기’

YWCA연합회는 매주 목요일 국민일보 32면에 YWCA 운동 정신과 현장을 소개한다.

4월은 3월에 이어 ‘생명에 생기를 – 생생한 이야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YWCA 생명 이야기를 다루었다.

4월에 실렸던 기사를 발췌 · 요약하여 담는다. (정리 : 편집실)

## 건강한 먹거리

4월 4일

건강 · 자연 지키고 에너지 소비 줄여주는  
 ‘유기농 삶’ 생활화로 생태 균형 이뤄야  
 생활협동조합 · 농산물직거래 등 동참  
 자원 낭비없는 ‘녹색식생활’ 정착 필요

첨가물 범벅 음식, 유전 조작 농산물, 인스턴트식품이 쏟아지는 이때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가 있을까 하는 암울한 생각도 든다. ‘자연과 지구, 사람이 함께 어울리며 공존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삶은 유기농(Organic life style)에 기반을 두면 좋겠다. 사회적?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몸을 지키는 동시에 자연을 보존하고 물자,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생태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또 새로운 삶은 녹색식생활(Green & Eco Food)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다. 녹색식생활이란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인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쾌적함을 취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건강해지는 삶을 희망하는 것이 우선이다. YWCA 등이 전개하는 생협,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자원을 지키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폐기물도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 Y가 만나는 세상 – (주)생명살림 올리

(주)생명살림 올리는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한다’는 목표로 2008년 4월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2005년 청주Y가 아나바다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가면서 시작되었다. 햄버거 시장에 글로벌 유통보다는 로컬푸드, 비정규직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고기보다는 콩을, 이윤보다는 공동체 가치를 지향한다. ‘모든 것에 이로운 버거, 올리버거’는 원가 절감이라는 시장 가치와 안전한 먹거리, 지역 먹거리라는 사회적 가치 속에서 지역사회 소비자와의 사회적 신뢰로 건강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운영원칙을 지키고 있다.

## 서로 도움 주고 균형 찾는 생태계

4월 11일

미생물은 기온 조절서 쓰레기 처리까지  
 생태계 균형과 회복 과정에 관여  
 그림에도 그 역할은 쉽게 안 드러나  
 YWCA 생명운동, 사람은 물론  
 환경 살리는 것도 포함  
 그동안 땅 · 하천 살리기 등 꾸준히 전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터전은 오묘하기 그지없다. 주님은 미생물을 통해 지구 생태계 시스템의 균형을 잡고 망가진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 중 질소를 생물이 쓸 수 있도록 바꿔 놓는 일도, 생물 쓰레기를 분해해 다시 공기 중 질소로 돌려보내는 일도 모두 미생물의 역할이다. 생태계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시스템이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게 도움을 주고 깨어진 균형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있는 이들을 깨우고 세상의 빛이 되라 명하셨다. 한국Y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YWCA 생명운동은 사람을 살리는 일 외에도 환경을 살리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땅과 하천을 살리는 운동, 먹거리 운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장바구니 운동, 에너지 절약 운동 등 다양한 실천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YWCA는 우리의 윤리의식을 인간 대 인간의 윤리에서, 인간 대 생태계의 생물 하나하나에게, 그리고 생태계라는 시스템 전체에게로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기심은 시야를 점점 좁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바른 길을 향하는 YWCA의 노력은 세상을 좀더 따스하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

## Y가 만나는 세상 – 유용한 미생물 EM

YWCA는 지역회원Y에 EM을 활용한 ‘에코(친환경)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왔다. EM(Effective Micro-organism)은 80여 종의 미생물로 구성돼 악취제거, 수질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방지 등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양산Y는 환경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EM발효액을 가정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EM운동을 펼쳐왔다. 또한 봄, 가을에 EM을 활용한 ‘흙공던지기’ 프로그램에 하천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을 동참시켰다. 이제 흙공을 던진 뒤 맑은 양산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또다른 자연 보전 활동을 펼칠 이들에게 피어날 살림의 실천들이 EM처럼 이 사회에 유용한 미생물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양산 EM흙공던지기

## 핵없는 사회, 방사능 위험없는 사회

4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주변 350km 방사능 고농도 오염  
 갑상선암 · 기형아출산 등 우려  
 YWCA, 고리원전 폐쇄 요구  
 태양광 설치운동 함께 전개

일본 산케이뉴스는 2013년 3월 8일 현재 전국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피난하고 있는 사람은 31만5196명이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후쿠시마 주민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주민들의 생활은 원전 사고의 정신적 후유증과 보상을 둘러싼 공동체의 붕괴에 더해 방사능의 일상적 공포로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과 방사능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일본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탈원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Y는 2013년 ‘탈핵 실천 에너지 운동’을 주력운동으로 삼고,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핵과 원자력발전소 위험을 시민사회에 알리며 에너지절약 · 태양광 설치 운동 등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 Y가 만나는 세상 – 고양YWCA 방사능 제로 공동체

고양Y는 생활방사능 측정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원전 하나 없는 고양주부들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왜 평범한 여성들이 탈핵운동가로 변신했을까. “이제 나 혼자 조심한다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에너지문제, 원전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수위 위원장의 말처럼 생활방사능 모니터링은 수치 측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을 수치로나마 눈으로 확인해 무더진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자는 데 목적이 있다. 나만의, 내 가족만의, 현 세대만의 안전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다음 세대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고민해야 한다.

#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즌

글 | 백혜진 (연합회 청년리더십팀 팀장)



광양YWCA - 광영중학교 어두운 학교담장을 환하게 바꿨다.



수원YWCA - 삼일중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공간으로 개조하기 전과 후



“학교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 것인지 오늘 역할극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가해학생들은 단 순히 돈을 뺏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학생들은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위협까지 받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왕따’ 라는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왕따가 심각한 문제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자살하는 친구들의 이유가 이런 공통 때문이었던지 몰랐어요. 나도 이제 친구를 배려하고 도와주어야겠어요.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자! 파이팅!”

“그걸 지켜보는 가해자는 재미있겠지만 피해자는 아주 불쾌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방관자도 공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글들은 ‘친친공감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 역할극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대다수가 포함된) 방관자의 역할을 체험해본 후 남긴 느낌 중 몇 가지를 추려본 것이다.

‘친한 친구’ 에서 따온 ‘친친공감프로그램’의 공식 이름은 ‘포스코와 YWCA가 함께 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 -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즌’이다. 한국YWCA에

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외연적 현상보다는 우리 사회가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상호 공감 능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늘 방관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NGO, 기업,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참여적 형태의 학교폭력예방과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5개 회원Y(서울, 수원, 순천, 진주, 포항)가 참여했고, 2013년에는 6개 회원Y(서울, 수원, 인천, 안산, 포항, 광양)가 협력 중학교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작년에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이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중학교 1학년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친친공감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적, 치료적 접근이 아닌 예방적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서로를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간 지속적으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든 프로그램에는 임영식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와 정경은 교수(초당대 사회복지학과)가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친친 와이파이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교사(학교장 포

함)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환경 바꾸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학교 교육의 주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친친공감프로그램’과 ‘친친공감페스티벌’이 있다. 앞서 나온 체험 후기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들의 공감과 배려의식, 행동증진,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기획된 친친공감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친친 와이파이즌의 핵심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8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2013년에는 12회로 늘려 진행한다.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감정을 분류해보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순서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중심의 공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도 프로그램 종합평가에서, 공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인지공감능력이 향상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지며,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정서공감능력은 큰 향상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2013년 프로그램에서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보완·수정하여 진행되고 있다.

학교의 어둠거나 후미진 장소를 찾아내어 청소, 페인트 칠하기, 공간 재구성하기 등의 학교 공간바꾸기 프로그

램도 진행 중이다. 공간바꾸기는 1차적으로는 학교 공간이 선정되면 어떻게 공간을 바꾸고 싶은지 등에 대한 설문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작업과정에 반영된다. 그리고 공간을 바꾸는 실제 작업과정에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된다. 실제 이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친구들 간 유대관계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공동의 목표를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감과 소통은 최근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는 공감, 소통, 배려의 부족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인 포스코의 직원들도 적극 참여하여 보다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밖에도 학부모가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과 상상의 콘서트’, 학부모와 또 다른 학교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교장을 위한 교사연수와 학교장, 교사간담회도 진행 중이다.

오랫동안 성적 중심의 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병폐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본다면, 한 두 해에 걸친 친친공감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YWCA의 청소년과 관련한 꾸준한 연구와 그 연구 결과의 실행이, 청소년의 아픔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내딛는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평화 건설이 곧 사회정의 실현

글 | 최 만 자 (여성신학자, 연합회 아카데미 위원)

## 에큐메니칼 평화운동의 뿌리

세계교회협의회(WCC)는 그 창립의 자리(1948년, 제1차 WCC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기독교 전통적 평화개념인 '정당한 전쟁론'(Just War)에 대한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 것이다. 에큐메니칼 교회의 평화신학은 무조건적으로 전쟁을 수용하지 않는 '절대적 평화주의'(absolute pacifism) 신학을 확고하게 내세웠다. 정지석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 '평화신학'의 뿌리가 '역사적 평화교회' -퀘이커(Quaker), 메노나이트(Mennonites), 형제교회(Brethren church)-의 평화정신에 기반한 것이라고 한다. 1930년대 초 세계전쟁 후 평화적 각성을 한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은 '역사적 평화교회'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계교회가 평화신학과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영적 기반을 찾았는데, 이들은 전쟁과 폭력 사용은 기독교 신앙에 어긋난 것이므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쟁참여 거부, 대체복무 찾기 등 평화주의 신앙을 실천적으로 지켜온 교회들이란 뜻에서 '역사적'이란 수식어를 얻었다고 한다. 현대 에큐메니칼 평화운동은 전쟁 종교로서의 교회의 잘못을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고, 전쟁과 폭력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 건설자로서의 역할이 교회의 사명임을 각성하면서 에큐메니칼 평화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 사회적 책임 신학-하나님의 선교신학의 평화운동 : 정의운동과 짝을 이루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는 끊임없이 발발하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제3세계들의 탈제국주의 흐름 등 혼란과 혼동의 시대였다. 따라서 냉전과 제3세계 급격한 변혁의 상황들이 WCC의 운동 안에 들어와 중심적 주제를 이루

었다. 1960년대 후반 세계교회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함께 사회참여 신학은 1968년 옘살라 총회에 이르러 1950년대부터 태동되었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선교신학은 '하나님이 직접 세상 속에 일하고 선교한다'는 선언으로 세상은 교회가 섬기고 살려야 하는 곳임을 새롭게 정립하여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신학적으로 확립하였다. 즉 세계대전 이후 격변하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의와 폭력과 전쟁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에큐메니칼 평화운동은 늘 정의운동과 짝을 이루며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교회의 정의-평화운동은 '성장의 한계'를 낸 로마클럽 보고서 이후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이란 신학을 정립하고 세계교회의 동시대 사명을 천명케 된다. 이런 맥락에서의 평화운동은 요한 갈통의 '평화'에 대한 개념 정의와 맥을 같이한다. 즉, '평화란 단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요인들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다. 갈통은 이 요인을 바로 '폭력'이라고 한다. 그는 적극적인 평화개념을 '폭력이 없는 상태', '사회정의의 상태'라고 규정한다. '전쟁 없는 상태의 평화'는 표면상 평온한 상태로 이것은 평화(peace, frieden)가 아니라 평정(pacification, befriedung)이라고 구별했다. 진정한 평화운동은 '적극적인 평화' 개념을 얻음으로써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갈통은 폭력을 1)물리적인 폭력 과 2) 구조적인 폭력으로 나눈다. 물리적 폭력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폭력이지만, 구조적 폭력은 가해자가 잘 보이지 않고, 사회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평화는 바로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 한국 에큐메니칼 교회의 평화통일운동

사회적 책임신학에 근거한 WCC 운동은 옘살라 대회 이후 제3세계 인간화와 해방을 위한 많은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남북 분단, 동족간의 전쟁,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중심사회의 노동인권 탄압, 1970년대 후 군사독재 정치에 의한 인권 억압과 민주화 운동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과 구조적 폭력 상태가 만연한 사회로 WCC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 에큐메니칼 교회의 평화운동도 '평화통일운동'에 더 집중되었다. 1970년 KNCC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로 개칭하고 본격적 운동을 시작하지만 6개 교단의 연합으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WCC의 지원과 연대는 국내 보수교회들과의 갈등과 분열, 대립을 만들기도 하였다. WCC는 특히 남북 분단과 대결구도를 화해와 공존의 차원으로 바꾸기 위한 '도잔소' 회의를 주선하였고, 비록 북한이 참여하지 못하였어도 80년대 통일운동의 전기를 마련한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WCC의 JPIC신학을 분단 극복과 통일 운동에 연계하여 이루어 나갔고 1988년 KNCC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회의 선언'으로 표명하기에 이르렀다(1988년 WCC인천평화대회). 한국 에큐메니칼 교회의 평화운동은 '평화통일 희년운동'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1945년 해방 이후 50년이 되는 1995년을 '희년'으로 정하고 유일한 분단국가의 남북 갈등상황 극복을 위해 전력하였다. 이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온 세계와 인류에게 희망을 찾는 일이기도 하며 1998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WCC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였다. 남북관계가 경직된 지금 상황에서 WCC의 과거 노력과 한국 에큐메니칼 교회의 통일 평화운동의 역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

## 에큐메니칼 평화운동의 과제

바이체크는 '과학기술 시대 생존의 조건은 평화이다'라고 했다. 이 시대 평화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재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평화운동 과제는 '반핵 평화운동'과 '갈등해결 운동'으로 집중된다. 1980년대 '핵을 죽음으로 물리치자'(Kampf dem Atomtod)는 유럽의 대중운동의 영향은 아직도 크다. 당시에 반핵평화운동을 이끈 사상은 철학자, 과학자, 종교인들의 윤리적 호소가 작용하였다. 그들은 칼 야스퍼스의 '사고방식의 전환'이란 시각을 받아들여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만을 주장하였고 과학자 18명이 소위 '뢰팅겐 선언'을 냈다. 이 선언은 핵무기에 대한 의식몽과 평화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핵무기 반대 대중들의 시위가 확대되었고, 매년 부활절마다 진행되는 반핵 시위에 많은 군중들이 정파, 종교,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참여했다. 반핵, 반핵무기 운동은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더 강화되고 있고, 남북갈등 상황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선 더 절박하다.

또한 평화운동의 방향은 냉전시대 평화운동인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 방지라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갈등이나 대립의 요소가 제거되고, 보다 더 긍정적인 평화의 구조가 갖추어지는 방향을 찾는다. 적극적 평화개념을 추구하는 탈냉전시대 평화는 어떻게 하면 갈등과 폭력이 생기지 않는 사회적 평화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혹은 갈등이 생기더라도 폭력이나 마찰 없이 순조롭게 풀어나가며,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추구한다. 썩가스는 폭력의 사유화 금지, 법치국가, 상호규제, 민주적 참여, 사회정의, 건설적 갈등의 문화 등 여섯 가지를 제안하여 갈등 극복 구조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오늘의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와 생명을 죽이는 모든 사회 문화구조에 대한 현실적이고 심도있는 반성 위에서 평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평화운동의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 환경을 생각하는 또다른 방법

글 | 편집실




환경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과학적 수치는 매년 충격적이지만 구태여 찾아보는 수고를 하는 이들은 드물다. 또한 누구나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한다는 생각은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아 자꾸 잊게 된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이 힘들다면 꼭 체크해야 할 영화제가 있다.

벌써 10회째를 맞는 서울환경영화제(10th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GIFFS)는 전 세계의 환경영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특히 이번에는 국제 환경 영화경선에 86개국 970편이라는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하며 마감되었다. 재단법인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환경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한캐나다 대사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영화제는 CGV용산과 아이파크몰 일대에서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되는데 영화를 통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고민하는 축제이다.

이번 서울환경영화제에 소개되는 총 46개국 146편의 환경영화는 다채로운 섹션으로 나뉘어 소개된다. 지난 2~3년 사이에 제작된 국내외 환경영화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상금을 주어 환경영화의 지속적인 제작과 보급을 독려하는 '국내환경영화경선', '기후변화와 미래' 외에도 기후변화와 빈곤은 왜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그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 논하는 '기후변화와 미래expanded-왜 우리는 빈곤한가?' 먹거리 특히 유기농 제품을 다룬 '기후변화와 미래 plus-주사위놀이 : 유기농과 GMO' 다양한 환경영화의 흐름을 소개하는 '그림 파노라마', 311대

지진과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한 영화를 모은 '그린 파노라마 비욘드-후쿠시마, 그날 이후', 가족 관객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지구의 아이들', 인간 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공존도 고민하는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 등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과 관심을 배려한 섹션이 준비되어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들이 지난 80년 동안 담아낸 북극 지역의 풍광과 변화를 담은 사진전과 더불어 캐나다 환경영화 '북극, 사라지는 빙하'를 소개하며,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한 퍼포먼스 'for G10'을 통해 마술쇼와 상영작 특별공연 그리고 인순이, 화요비, 주니엘 등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어른을 비롯해 청소년까지 함께할 수 있는 '시네마 그린틴'을 확대하여 환경영화관람과 다양한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5월 9일 개막식 상영작으로 개봉된 '프라미스드 랜드'는 민감한 사회/환경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영화의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며,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환상으로 흔들리는 공동체'라는 익숙한 스토리구조 위에 배우들의 대사와 연기를 맛깔스럽게 배치했다. 배우 맷 데이먼의 첫 연출 프로젝트로 진행되다가, <굿 윌 헌팅>과 <제리>로 호흡을 맞췄던 구스 반 산트 감독이 연출을 맡고, 맷 데이먼과 존 크래신스키가 시나리오와 주연으로 참여했다. 

# 참 놀라운 세상

글 | 김기석 (청파감리교회 담임)

창 1:1~5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말을 '공허, 혼돈, 어둠'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는 주전 6, 7세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바벨로니아에 끌려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여 살긴 했지만 식민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고통스러운 처지가 되었다. 바로 이 상황을 옛 사람들은 '공허, 혼돈, 어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들이 정말 놀라운 문헌을 전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창조 이야기다.


첫 대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는데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는 그 땅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적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한다. 이 뜻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었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바꿔 쓸 수 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공허와 어둠,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고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 임하여 주셨다는 뜻이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게 되자 그들 마음에 빛이 솟아 나왔다. 어두운 절망을 뚫고 빛이 솟아 나왔다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다.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은 공창이다. 이는 하나님이 혼돈세계에 질서를 가지고 와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으로서의 공간을 만들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혼돈을 극복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신다.

셋째 날은 각종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나게 명하신다. 순서적으로는 해, 달, 별이 먼저 나오는 것이 맞는데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꾼 것이다. 그 까닭은 이렇다. 바벨론은 태양, 달, 별을 신으로 숭상하였다. 그것을 잘 섬길 때만 인간은 신의 가호를 입어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순서를 뒤집어서 해, 달, 별신이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땅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피조세계에 먹고 살만한 것들을 마련해 주심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셔서 시간의 리듬을 만드셨다. 창세기에 보면, 실의에 잠겨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사건이 있다. 이는 장막 안에서 근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도록 하여 그의 시야가 우주까지 확장되도록 한 것이다. 신앙이란 넓은 시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 신비의 별들 앞에서 삶을 통찰해보라 말씀하신다.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 물속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물에 사는 것과 인간을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실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된다. 인간이 인간다운 때는 하나님의 '좋다'에 동참해서 '좋다'고 말할 수 있을 때다. 세상에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운 수 있다.

하나님의 감탄에 동참하는 삶,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 연합회 소식

## 5월 월례아침기도회



연합회는 5월 1일 오전 7시 30분에 월례아침기도회를 열었다. '참 놀라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YWCA 생명운동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3 YWCA-한국씨티은행 씽크머니 협약식 및 씨티은행 1차 금융강사 교육



4월 16일 연합회 강당에서 2013 YWCA-한국씨티은행 씽크머니 협약식을 가졌다. 8주년을 맞이한 씽크머니 협약식에는 연합회 차경애 회장,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등 총 43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식 이후 2013년 금융강사 교육이 있었다.

## 2013년도 YWCA 전국회장단 연수 및 임시총회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YWCA 버들캠프장에서 2013년도 YWCA 전국회장단 연수가 있었다. 기독교운동체로서의 한국YWCA과제 강의(장윤재 목사), 탈핵 에너지 운동의 실천 강의(이유진 위원), 회장단 역할이해 워크숍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전국회장단 82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참석한 회장단들은 18일 오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연합회 정관 개정의 안을 협의하였다.

## 제17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4월 25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17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이 있었다. 대상 SBS대기획(최후의 제국), 생명부문 MBC(PD수첩-생명존중기획 2부작), 여성부문 KBS(시사기획 창-임신하면 안 되나요, 수요집회 20년, 끝나지 않은 전쟁), 청년·청소년 부문 KBS월화미니시리즈(학교2013), 평화부문 SBS힐링캠프, 특별상 G1강원민방(DMZ스토리)가 수상하였다. 자세한 내용(p.12~)

## YWCA어린이집 원장 연수



YWCA복지사업단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YWCA어린이집 원장 연수가 있었다. 리더십 훈련, 각 어린이집의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 실무자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 YWCA은학의 집 직원 워크숍



YWCA복지사업단은 4월 27일 버들캠프장에서 YWCA은학의 집 직원 워크숍을 하였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천진 목사와 YWCA와 은학의 집, 함께하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성주산 둘레길 탐방이 있었다. 은학의 집 직원, 연합회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 한국YWCA정책교육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YWCA정책교육이 있었다. '탈핵과 생명운동'이라는 주제로 후쿠시마 아이즈방사능 정보센터 카타오카 테루

미 씨 초청 강연회로 진행하였다.

## 회원YWCA 모금전략수립 1차 워크숍



회원YWCA의 모금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모금전략수립 워크숍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본 워크숍은 경기지역위원회를 우선으로 하여 고양, 부천, 성남, 안산, 파주YWCA 그리고 연합회 실무단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그 첫 번째 워크숍이 4월 18일 오후 1시부터 버들캠프장에서 진행되었다. '모금의 가치와 Y가 모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주)도움과 나눔 최영우 대표의 강의와 토론, 발표가 있었다.

## 차경애 연합회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연합회 회장이 한국YWCA연합회의 지도자로 45년 이상 근속하며 청소년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 보호의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청소년·가족유공자 부문)을 받았다. 시상식은 5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있었다.

## 동 정

- 최윤미 연합회 총무팀 간사 사직 (2013.4.30)

## 전보 발령

- 안정희(연합회 사무부 부장) 은학의 집 부장 (2013.5.1)
- 배정미(연합회 돌봄과살림팀 부장) 돌봄과 살림·총무팀 부장 (2013.5.1)
- 박미선(연합회 회계 간사) 사무부 간사 (2013.5.1)

# 복부

## 서울YWCA 박서영 간사 옥외가격표시제 정착 캠페인



서울Y는 4월 26일 명동에서 옥외가격표시제 정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에게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홍보물을 배부하며 제도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촉구했다. 사업주에게는 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제도 시행기준과 가격 표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 봄꽃 나들이

서울Y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4월 17일 KT&G복지재단 후원, 관악구 재가복지연합회 8개 기관 연합으로 어르신 나들이를 다녀왔다. 나들이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경기도 안성 팜랜드에서 트랙터 마차를 타고 동물구경도 하고 남사당 공연을 관람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 인천YWCA 이한나 간사 Y-틴·대학Y 인준식



인천Y는 4월 20일 Y-틴·대학Y 인준식을 가졌다.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김용옥 회장이 19개교 Y-틴 클럽과 대학Y 클럽 인준, 지도교사 26명, 청소년지도자 28명, Y-틴과 대학Y 임원을 임명하였다. 인천Y는 올해 나라사랑프로그램 'Zoon in 대한민국', 교사와 학부모, 청소년이 함께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친친와이파이존', 자원순환의 실천방법을 찾는 '자원순환 청소년 지킴이', 청소년들의 문화를 마음껏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청소년 문화존'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인준식에는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 여성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

인천Y는 4월 25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동구와 부평구의 정책모니터링 교육을 시작하였다. 6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10월에는 여성정책제안 포럼을 갖는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책감수성을 높이고 생활정치 실현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강릉YWCA 김미란 간사

### 회원운동 발대식

강릉Y는 4월 8일 강릉Y 회관에서 회원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고문희 회장의 회원운동을 위한 특강, 위원회 별 회원증모 전략 워크숍을 가졌다. 2013년 강릉 지역 생명살림을 위해 회원증모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약 32명이 참석하였다.

## Y-틴 인준식

강릉Y는 4월 3일 Y-틴 인준식을 가졌다. 고문희 회장의 인사 말씀과 함께 Y-틴 목적문 선서 낭독, 인준장과 뱃지 수여가 있었다.

## 속초YWCA 백수미 간사

### 상록수학교 수학여행

속초Y는 4월 28일 총주지역으로 상록수학교(성인야학 고입 검정고시대비반)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총 23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졸업동문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원주YWCA 김병남 간사

창립46주년 기념 생명나무심기



원주Y는 4월 9일 창립46주년 기념 생명나무심기와 타임캡슐 행사를 가졌다. 원주YWCA 동산에 총 50그루의 나무를 심고 어린이집 아이들과 타임캡슐도 함께 묻었다. 타임캡슐은 원주 Y 창립100주년 기념식에서 열어볼 예정이다.

기업체 인턴제 사업



원주Y는 4월22일부터 29일까지 준고령자를 위한 기업체 인턴제 사업을 실시하였다. 1주일 동안 직장예절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 과정을 거쳤고, 교육 수료 후 총 12명 전원을 취업 시켰다.

춘천YWCA 진소정 간사

폐현수막 재활용 교육

춘천Y는 4월 6일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에코생활용품을 만드는 교육을 시작하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총 8회가 진행되는 이 교육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에코가방, 도시락가방, 앞치마, 통장지갑 등 다양한 생활소품을 만들어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현재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회원특강 '떡 케이크 만들기'



춘천Y는 5월 7일 '떡 케이크 만들기' 회원특강을 가졌다. 춘천Y 회원특강은 매달 다양한 과정으로 회원들과 만나고 있으며, 요리, 미니정원 만들기, 떡 케이크 만들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

부천YWCA 이지원 간사

부천시민 촛불문화제



부천Y는 4월 15일 '시민연대회의', '종교인평화회의', 시민들

과 함께 송내역에 모여 평화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단체별로 전쟁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춤, 노래 등을 발표하였으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돌봄회원을 위한 민들레강좌

부천Y는 4월 26일 '돌봄회원을 위한 4월 민들레 강좌'를 열었다. 천방옥 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과장)의 진행으로 '의약품 안심서비스(DUR)'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약을 안전하게 먹는 습관과 올바른 건강관리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Y-틴 인준식

수원Y는 4월 13일 삼일상업고등학교 강당에서 Y-틴 인준식을 가졌다. Y-틴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센터 Y-틴 등 총 16개가 Y-틴 인준을 받았다. 이어 지도교사 7명과 청소년지도자 14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인준식을 통해 Y-틴 회원으로 정체성을 갖도록 하고 자발적인 청소년 활동을 격려하고 지지하였다.

애들아 밥먹자



수원Y는 4월 24일 바른먹거리 운동과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유신고등학교 2천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김밥과 음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아침식사 레시피를 전달하여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렸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Y-틴 인준식

안산Y는 4월 20일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 청소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Y-틴 청소년 동아리 인준식을 가졌다. 박성순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활동선서, 축하공연 등이 있었다. 올해는 Y-틴 8개, 대학Y 1개, 청소년위원회 1개, 총 10개의 동아리가 인준을 받았다.

이사·실무자 연합 아우회

안산Y는 4월 19일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와 실무자 44명이 아우회를 다녀왔다. 자원지도력과 실무지도력 간 소통을 강화하고 YWCA 운동을 실천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안양YWCA 김희정 간사

회원증모 캠페인

안양Y는 4월 19일 범계역 로데오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운동 캠페인을 열었다. '에너지절약 실천하면 원전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탈원전 사회를 위한 메시지 전달과 에너지절감 실천약속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지구본에 부착하였다. 또한,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한 EM 발효액 무료 배부로 지구를 살리는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애들아 밥먹자

안양Y는 5월7일 성문중·고등학교에서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열었다.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1,800개의 주먹밥과 음료를 배부하며 스티커 설문조사를 하였다. 한편 캠페인 전날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유·아동 숲놀이교사 양성교육

의정부Y는 5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유·아동의 생태감수성과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유·아동 숲놀이 교사 양성교육'



을 진행한다. 매주 화, 목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본 교육은 목본, 초본, 수서생물, 곤충, 유아동 생태교육, 숲 놀이 실제와 기획, 생태견학, 실습 등 생태강사의 이론과 현장체험으로 구성된다.

## 중부

대전YWCA 강은혜 부장

### 창립67주년 기념 예배 및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대전Y는 4월 10일 대전보문감리교회에서 창립67주년 창립 기념 예배와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기념 예배에서 연합회 강교자 직전회장의 '움직이는 사회 속의 교회, YWCA' 라는 특강과 YWCA합창단, 직원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에서는 차영희 총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회원증모운동의 계획과 선서가 있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돌봄과 살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느 해보다 풍성한 자리가 되었다. 올해 대전Y 회원증모운동은 회원 3,488명, 회비 1억5천2십만 원을 목표로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청주YWCA 박보람 간사

### 애들이 밥먹자



청주Y는 4월 16일 청주 산남고등학교에서 충북농협지역본부와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YWCA의 생명운동을 알리고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주체인 학부모와 청소년의 소비자 의식을 일깨우는 일에 앞장서고자 본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산남고등학교 학생 외 총 40여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하였다.

###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청주Y는 5월 2일 9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윤정숙(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강사의 '모금은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주제의 특강과 대별 구호 제창으로 발대식에 모인 모두가 회원증모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였다. 2013년 회원증모운동에 200명의 회원과 5개의 직업클럽 회원이 활동조원으로 조직되었으며 모집 목표는 4,143명이다.

충주YWCA 김애영 부장

### 충주 다문화어린이 합창단 창설



충주Y 부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월 16일 오디션을 거쳐

충주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을 창설하였다. 향후 관내 병원 및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재능기부로 활동을 하며 5월에 창단식을 갖는다.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이 지원한다.

논산YWCA 김화선 간사

### 애들이 밥먹자

논산Y는 5월 7일 논산여중·고 전교생 및 교직원 1,500명 대상으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땅과 생명을 살리는 바른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7년째 시행되는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고 아침식사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

천안YWCA 이연주 간사

###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경비원 교육

천안Y는 5월 6일부터 13일까지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경비원 교육을 진행한다. 50세 이상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비원 실무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 기술,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이수 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서부

광주YWCA 김해정 간사

### 오월Y시민포럼

광주Y는 5월 14일 5·18민주화운동 제33주년 기념 '제19회 오월Y시민포럼'을 열었다. 제1부故박웅준 열사 추모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 제2부 오월Y시민포럼(5·18과 연극 '이 세상의 희망이야기'), 제3부 5·18 국립묘지 참배로 진행되었다. 오월Y시민포럼은 5월의 정신을 기리고, 5월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하여 희망으로 표현하는 시간이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금식기도회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광주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금식기도회가 열렸다. 광주YWCA, 광주YMCA, 광주NCC, 광주CBS 공동으로 한 이번 금식기도회에 9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김병균 목사(고막원교회)의 '어두운 세상과 씨름하라'는 말씀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였다. 매주 화요일 릴레이 기도회로 진행된다.

남원YWCA 조윤희 팀장

### 임산부·산모 교육

남원Y는 5월 매주 화요일 임산부·산모를 위한 '베이비 마사지 교실'을 운영한다. 전문베이비마사지 강사를 초빙하여 엄마와 아기가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산모들 간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전주YWCA 김은진 부장

### Y-틴 인준식

전주Y는 4월 6일 Y-틴·대학Y 인준식을 가졌다. 1부 인준예배를 시작으로 2부에는 6개 클럽, 80명의 회원들이 인준을 받았다. 특별히 이날 인준식에서는 독도의 날을 알리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 사랑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 서부지역 Y아카데미



전주Y는 4월 24일 전주바울교회에서 서부지역 Y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서부지역 9개 회원Y(광주, 광양, 목포, 남원, 여수, 순천, 서귀포, 익산, 전주)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영성훈련(이영재 전주화평교회 담임목사)과 YWCA 지도자의 사명-탈핵운동과 지역사례 나의 역할 찾기(하선규 부산Y 회장), YWCA운동중점 워크숍-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후쿠시마 탈핵 활동가 카타오카 테루미)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회를 통해 탈핵의 필요성과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알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광양YWCA** **추효인 간사**

**희망과 상상콘서트**



광양Y는 4월 9일 광영중학교에서 우리학교는 친친 와이파이 존-희망과 상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학부모 및 교직원, 실무자 포함 8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아이 마음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문경보 소장(문청소년교육 상담연구소)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향후 반별 학교프로그램, 벽화 꾸미기, 북카페 조성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될 예정이다.

**목포YWCA** **곽수현 부장**

**창립66주년 기념 예배**



목포Y는 4월 20일 창립6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 김주현 목사(목포북교동교회)의 말씀, 특별찬양에 이어 장학생 18명(대학생 9명, 고등학생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기념 예배에는 김애자 회장을 비롯한 이사, 장학생, 직원 등 88명이 참석하였다.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목포Y는 4월 20일 회원증모운동발대식을 가졌다. 이사, 직원 등 10개조로 나누어 목표와 다짐을 나누었다. 회원증모를 통해 YWCA를 알리고, 생명세상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55명이 참석하였다.

**Y-틴·대학Y 인준식**

목포Y는 4월 13일 목포정명여자중학교에서 Y-틴·대학Y 인준식을 가졌다. 개회 예배 이후 인준식에서 김은미 Y-틴 위원장과 김애자 회장의 인사말, 10개 학교에 조직된 Y-틴, 대학Y에 인준, 회원선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Y지도교사(해인여중 김수정) 표창과 Y-틴(목포여고 이소라) 표창 수여도 함께 하였다. 이날 인준식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순천YWCA** **신현아 간사**

**회원증모운동 전략 워크숍**

순천Y는 4월 15일 날 광양Y와 함께 회원증모를 위한 회원증모 전략 워크숍을 가졌다. 연합회 강교자 직전회장의 회원증모 전략 강의가 있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사, 직원,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여수YWCA** **장미일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여수Y는 4월 23일 회관 강당에서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하선규 부산Y 회장의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라는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회원증모 조직구성 및 세부계획을 세웠다. 이사·위원·실무자 45명이 참석한 이날, YWCA 회원증모 운동의 목적 및 목표를 되짚으며 회원증모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여수Y는 이번 회원증모 발대식을 통하여 성공적인 회원증모를 기대한다.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서귀포시민 평화아카데미 개강식**



서귀포Y는 4월 19일 동홍아트홀에서 '서귀포시민 평화아카데미' 개강식을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강인순 서귀포Y 직전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평화협력과 과장의 축사로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평화, 상생, 배려, 개방의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고, 공존방향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찾아가고자 마련됐다. 개강식 이후 진행된 제1강좌는 '평화를 위한 소통'을 주제로 윤혜숙 대전지역사회협의회 회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평화아카데미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씩 총 6강좌가 진행되며 제2강좌는 5월 19일 동홍아트홀에서 진행된다.

**동부**

**대구YWCA** **김세형 차장**

**목회자사모 초청 오찬회**

대구Y는 5월 2일 대구Y 회관에서 목회자사모 초청 오찬회를 가졌다.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Y운동을 펼쳐가기 위해 대구Y 90년의 역사와 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EM, 대구Y 부속시설 및 저개발국가여성 '초은' 소개,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 운동 등을 소개하고, (주)민들레가게, 착한치과 등 대구YWCA 회관을 둘러보았다. 목회자사모 초청 오찬회를 통해 지역선교 비전을 향한 생명사랑공동체 운동이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이날 오찬회에는 지역교회 사모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카부츠 벼룩시장**

대구Y는 5월 4일 대백프라자 야외주차장에서 제2회 사랑의 카부츠 벼룩시장을 열었다. 지역주민 100여명, 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녹색사랑을 실천하는 장터였다. 판매활동 외에도 축하공연, 재능기부공연(Y-틴 마술쇼, 플룻연주), 희망나무 열매달기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의 기부금은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 저개발국가여성 돕기 등에 쓰일 예정이다. '카부츠'는 유럽형 벼룩시장으로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를 판매대로 사용해 물건을 사고파는 프리마켓이다.

**부산YWCA** **박지영 간사**

**황매산청소녀야영장 개·보수 감사예배**



부산Y 황매산청소녀야영장 개·보수 감사예배가 4월 9일 황매산청소녀야영장에서 있었다. 부산Y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개·보수를 시작하였다. 이사, 산청군 관계자, 지역주민 90여명이 참여하여 감사예배와 축하회를 가졌다.

**울산YWCA** **김선양 팀장**

**회원증모 발대식**

울산Y는 5월 6일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하였다. 올해 회원증모 슬로건은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 나가자! 뛰자! 만나자! 성공~!' 으로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울산Y는 매주 월

요일 각 위원회가 회원증모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지역사 회에 YWCA를 알리고, 생명사랑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 대한다.

**포항YWCA** 김윤미 팀장

**살림돌보미 신입교육**

포항Y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살림돌보미 교육을 진행하 였다. YWCA의 정체성 및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교 육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안동YWCA** 강주영 간사

**육아교실 개강**



안동Y는 4월 8일 육아교실 '똑똑한 엄마 함께 걷는 친구' 프 로그램을 개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체조 교실, 신체활동놀 이 교실, 이유식 만들기 교실, 아기용품 스스로 만들기 교실, 특강으로 구성된다. 1년 동안 진행되며 30가정이 참여하여 육아 정보를 공유한다.

**거제YWCA** 김의향 팀장

**청소년오케스트라 봉사활동**

거제Y 청소년오케스트라는 4월 13일 장애인시설 '제주평화 의마을'에서 연주 봉사활동을 하였다. 악기 연주와 노래를 통 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소통의 시간이었고 제주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봉사단원도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었다.

**멘티-멘토 결연식**

거제Y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월 10일 2013년 여성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멘티-멘토 결연식을 가졌다. 멘 토링 결연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50쌍의 멘

티-멘토 관계를 맺는다.

**김해YWCA** 배정숙 실장

**회원증모 발대식**

김해Y는 5월 13일 회원증모 발대식을 가졌다. 팀별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인 회원증모 방법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였다.

**사천YWCA** 박양성 간사

**사천시 자원봉사박람회 참여**

사천Y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천시 자원봉사박람회에서 YWCA를 홍보하였다. 사천Y는 이동소비자상담, 건강가정상 담, 다문화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진주YWCA** 김태진 간사

**싱크머니 데이**

진주Y는 4월 24일 싱크머니 데이를 열었다. 배영초등학교 6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융교실 '싱크머니 골든벨' 과 '싱크머니 4행시 짓기', '경제용어 찾기' 활동을 하였다. 청소 년들이 금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날 행사**

진주Y는 5월 5일 진주시가 주최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였 다. EM 비누 만들기와 아시아 문화 체험을 주제로 청소년부 와 다문화교육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창원YWCA** 황은진 간사

**인문학 동아리**

창원Y는 인문학 동아리 '생각보따리'를 운영하고 있다. 인문 학을 함께 공부하고 여성 리더십을 기르고자 한다. 5월에는 이달의 책으로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조윤선)'로 선정 하였다.

가정의 달, 북한어린이와 함께해요!



월 3만원이면 북한어린이 한 명이 한 달간 분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에 북한어린이들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어린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YWCA**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Tel.02-774-9704 www.ywca.or.kr

후원계좌 :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